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하는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

박종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선대학원 박사후 연구원)

이 논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부각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에 주목하여, 나토의 대표적 군사개입 사례인 보스니아 내전(1992~1995)과 코소보 분쟁(1998~1999)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멜로 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 중심의 정책 의견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나토의 군사행동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의 주장과 인식은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불가침주의 원칙과 유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신세계 질서에서 지배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인식이 지니는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전지구적 책임, 군사개입, 인도주의적 개입,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

*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2008년 2월 한국언론학회 문화·젠더 분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 park.chongdae@gmail.com

1. 문제 제기

오늘날 세계는 국가와 문화의 경계 및 지리적 거리를 넘어서 자연재해, 환경문제, 빈곤과 기아, 인종 분쟁, 인권 문제 등에서 야기되는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지구화(globalization)를 통한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의 강화와 함께 기술·미디어의 발달과 사회적 이용은 전지구적 범위와 규모로 제기되는 책임이 자리를 잡도록 돕는 배경이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전지구적 차원의 책임 주장과 개인 수준의 책임감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개입이다.

냉전 시기 동안 미국과 구소련이 개입한 국제분쟁은 주로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과 양대 초강대국의 이익을 둘러싼 대리전 성격을 띠었다. 반면 소련의 해체 이후 1990년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주권국가에 대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군사행동은 인도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 서방 정부와 유엔 및 전지구적 비정부기구들은 주권국가 내의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도덕적 주장으로 정당화한 무력 사용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또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비판한다. 특히 유엔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이지만 도덕적인’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은 국제정치 또는 신세계 질서에 도덕과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Chomsky, 1999; Hammond, 2004; Ignatieff, 2000;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2000; Johnstone, 2002; Virilio, 2000; Žižek, 1999). 탈냉전 시기 서방의 엘리트 언론 역시 분쟁 지역들에서 자유주의의 적을 재발견해냄으로써 분쟁 해결과 희생자 보호를 위한 자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 이후 부상하고 있는 도덕적 책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검토는 전지구적 민주주의와 평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미국 중심의 나토가 개입한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엘리트 언론이 제기한 도덕적 주장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들의 도덕적 주장이 미국 국민과 세계시민들에게 경험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문제화(problematization)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주권국가에 대한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며 미국 엘리트 언론이 제기한 도덕적 주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전지구적 책임(global responsibility)’을 분석하고,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지닌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탈냉전 시기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국제적 위기의 발생과 해결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다. 미디어의 전지구화와 비대칭적인 국제정보유통질서를 고려하면, 미국 엘리트 언론 역시 자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국내보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 보도, 특히 국제분쟁에 관한 보도에서 엘리트 언론의 영향력은 대다수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막강하다. 따라서 엘리트 언론의 국제분쟁에 관한 보도와 해설은 분쟁에서 비롯된 다른 국민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원천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개입’에서 표방한 책임 주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신세계 질서에서 미국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또는 전지구적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잠재성(potentiality)을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전지구적 책임 주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더욱이 1990년대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에 대한 분석은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및 전지구적 비정부기구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간섭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자국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언론의 책임 주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도덕적 담론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파악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도덕적 주장이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무력 사용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 이상의 잠재성을 지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전지구적 책임 담론의 부상과 군사개입

‘전지구적 책임’ 용어의 부상은 전지구화 속에서 국가 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며, 지역적 행위의 영향력이 전지구적 수준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기술의 발달과 전지구화는 지역적 행위에 수반하는 결과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며, 지역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인식도 확장하고 있다(Jonas, 1974; Ricoeur, 2000). 그러나 전지구적 책임 용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는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지구적 책임 개념을 정리한 연구를 살펴보고, 현실 정치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전지구적 책임은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경향을 보인다. 쿡(Küng, 1991)은 전통적 가치가 도전받고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개인 및 조직 윤리로서 전지구적 책임을 제시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다양한 종교 조직 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미드클레이(Midgley, 1999) 역시 전지구적 차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윤리로서 전지구적 책임 개념을 사용한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으로서도 전지구적 책임이 제기된다. 비에노트는 전지구적 책임을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세계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다양한 실천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Biefnot, 2003, p.18). 이렇듯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윤리적 접근은 전지구적 책임의 실천적 함의를 깨닫게 한다. 보그트(Vogt, 2006)는 전지구적 차원의 책임 주장이 정치적 입장을 도덕적으로 미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를 명시하고 책임을 떠맡는 방식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과 함께 실제 용례에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이 규정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톰린슨(Tomlinson, 1991)이 ‘문화 제국주의’ 용어의 혼합적(hybrid) 성격을 토대로 문화 제국주의를 제기하는 주된 방식들을 담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개입과 관련하여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이 거론되는 방식들을 구분함으로써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개입과 관련된 전지구적 책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담론으로 인도주의적(humanitarian) 책임, 지역 안보(regional security)에 대한 책임, 인도주의적 책임과 안보에 대한 책임 주장의 실상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 유럽연합, 유엔, 나토 등은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분쟁의 희생자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개입하는 것을 자국 또는 국제기구의 책임이자 의무로 간주한다(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Mepham & Cooper, 2004). 둘째, 미국의 신보수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우위를 통해 지역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 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Elshtain, 2003;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1997).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책임과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 주장이 제국주의적 침략 또는 ‘신제국주의(new imperialism)’를 미화하는 방편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Chomsky, 1999; Fouskas & Gökay, 2005; Hardt & Negri, 2000, 2004; Spivak, 1994).

강대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개념을 수정하면서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적 기구인 유엔의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유엔은 회원국의 주권 보호를 위한 불간섭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 조항으로 유엔 회원국이 침략을 받거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자위권 행사와 무력 사용을 합법화한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군사개입 이후 나타난 유엔의 입장 변화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지지하는 움직임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산하기구들 역시 불간섭주의 원칙을 비판하면서 인권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을

합법화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유엔 산하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는 보고서 『보호할 책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새천년 개발 목표』와 2004년 유엔 고위급 자문위원회의 집단안보에 관한 보고서 『보다 안정된 세계: 우리 공동의 책임』에서도 주권국가가 자국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 견지된다(United Nations Millennium Summit, 2000; United Nation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2004).

2) 미디어와 전지구적 책임의 형성

미디어와 전지구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분석 수준에 따라 서로 모순되면서도 관련된 두 개의 시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전지구적 책임의 구성을 해명하는 다양한 이론 가운데, 구조적 수준의 분석인 허먼과 촘스키(Herman & Chomsky, 2002)의 ‘선전모델(propaganda model)’과 개인적 수준인 톰슨(Thompson, 1995)의 자아 형성과 정체성 구성론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교는 구조적 수준에서 주장되는 전지구적 책임과 개인적 수준에서 경험되는 전지구적 책임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가 된다.

허먼과 촘스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류 언론이 지배 세력과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봉사하고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류 언론의 행동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언론사의 소유 구조와 집중, 광고주에 대한 의존, 사회 엘리트와 언론의 상호 이해관계, 뉴스 보도에 대한 비판과 외압 및 사회·문화적 요소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주목한다. 따라서 주류 언론은 지배 세력의 관점을 대중에게 선전하며 이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도

록 돕는다. 특히 자국이나 우방국의 학대받는 사람(‘무가치한 희생자’)과 적국의 희생자(‘가치 있는 희생자’)에 대한 이분법적 언론 보도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는 허먼과 촘스키의 가설은 구조적 수준에서 미디어와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시한다. 이 가설에서 우방국의 희생자는 사건의 탈맥락화와 최소한의 인간적 흥미 부여를 통해서 대중의 흥미와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변화된다. 이외는 반대로 적국의 희생자는 대중의 주목을 받도록 극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된다. 따라서 선전모델에 따르면 전지구적 책임 주장 역시 대외 관계에서 지배 세력의 이익을 반영하는 선전 도구로 볼 수 있다. 물론 환경 감시 기능을 통한 언론의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고려해야 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및 선과 악의 대립적 갈등이 사라지고, 언론이 애국심에 바탕을 둔 문제 설정에서 벗어남으로써 정부에 대한 언론의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엔트만(Entman, 2000)의 예측도 검증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외 정책과 관련된 언론의 취재 관행 분석에서 언론이 정부와 관료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Bennett, 1990; Entman, 2004).

구조적인 수준의 분석으로 냉전의 종료 이후 전지구적 책임이 대외 관계를 둘러싼 지배적인 지식의 하나로 부상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드보드(Debord, 1994)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펙터클이 원자화된 개인들을 관리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스펙터클을 원자화된 개인들을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로 규정하는데, 스펙터클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삶과 경험의 영역을 한정한다는 것이다. 스펙터클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에 관한 드보드의 이론화는 타인의 고통과 전지구적 책임이 이미지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방식과 함께 구조적 힘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경험되는 방식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서방의 인도주의적 개입 주장이 일종의 ‘기만(deception)’이라고 갈파한 비릴리오의 주장과 선의를 지닌 서구인들의 코소보 위기에 대한 미디어 경험 역시 대중오락의 스펙터클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존스톤의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Johnstone, 2000; Virilio, 2000).

개인과 조직 수준의 분석에서는 미디어 또는 미디어 담론이 전지구적 책임을 윤리적 당위로 확장하고 진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톰슨(Thompson, 1995)은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적 사용의 증가가 새로운 상호작용과 가시성(visibility)을 창출하고, 이에 상응하여 공적인 영역이 확장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적 이용을 통해 다양한 상징적 자원과 시공간의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이 유통됨으로써, 전통사회에서와는 달리 개인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상호작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톰슨은 자아 형성을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징적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인 프로젝트’로 가정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전지구적 책임이라는 윤리가 하나의 도덕적·실천적 가능성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저널리스트와 취재 관행의 수준 및 미디어의 이용에 관한 조직적 수준의 분석에서도 윤리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Seib, 2002; Tester, 1994, 2001).

앞에서 살펴본 구조적·국가적 수준과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논의는 전지구적 책임의 가능성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미디어와 전지구적 책임의 관계 분석에서 두 수준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란타넨(Rantanen, 2005) 역시 미디어와 세계주의(cosmopolitanism)에 관한 논의에서 개인 수준의 세계주의를 향한 움직임을 구조적 수준의 대중적·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론적으로는 개인과 조직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세계주의와 ‘전지구적 시민권(global citizenship)’이 지닌 전지구적 책임을 위한 잠재성과 정부의 대외 정책과 주류 언론의 관계에서 제시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위험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전쟁 담론과 ‘생체권력(biopower)’에 대한 푸코(Foucault, 1990, 2003)의 이론화와 탈냉전 이후를 ‘제국(empire)’과 ‘다중(multitude)’의 틀로 설명하는 하트와 네그리(Hardt & Negri, 2000, 2004)의 가설은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지니는 정치적 성격의 문제화에 도움이 된다.

먼저 푸코(Foucault, 1990)는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에서 전쟁 담론을 통한

주권의 행사와 근대적 주체의 형성이 핵심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근대적 주권과 국민(population)의 주체 형성에서 외부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쟁 담론은 내부를 통제하는 정치적 수단이 된다(Foucault, 2003). ‘사회를 방어해야 한다(Society Must Be Defended)’는 주장은 근대적 주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용한 합리화 기제였다. 근대 민족국가의 주권은 국민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이고 규율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부성(paternalism)’으로 전개된다. 푸코가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에서 전쟁 담론과 생체권력이 담당한 주권과 국민 사이의 역학 관계의 효과를 설명한다면, 하트와 네그리는 탈냉전 이후 개별 국가 수준을 넘어서 전지구적 주권 권력인 제국이 전쟁을 이용하여 생체권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탈냉전 이후의 군사개입을 특정 국가(들)가 아닌 네트워크로서의 권력, 즉 제국이라는 주권체가 도덕적 주장에 기초한 생체권력을 이용하여 탈영토화된 전지구적 수준의 영토에서 내전을 야기하고 다중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트와 네그리는 전쟁이 국제 관계에서 예외적인 시기가 아니라 신세계 질서를 통치하는 조건의 하나라고 이해한다. 그들의 가설에 의하면, ‘생체정치적 생산(biopolitical production)’을 통해 제국의 힘에 저항하는 다중의 연대 가능성이 바로 제국으로 표상되는 전지구적 주권체 내부에 잠재해 있다. 푸코의 권력 이론과 하트와 네그리의 네트워크 권력 개념을 접목하면, 군사개입을 둘러싼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미국 국민과 세계시민들에게 전지구적 수준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주권 권력의 도덕이자 윤리가 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분쟁 상황의 주권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하나의 도덕적 주장이자 윤리로서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지구적 책임 담론의 형성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화는 세계 질서의 패권국과 강대국들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약소국의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방식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동적이고 진보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조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감 인식이 지배적인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이용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힘의 산물인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느슨한 이데올로기로서 지배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지, 또는 전지구적 책임 담론의 잠재성이 구체적인 개입 현장에서 실현되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문제 제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 및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미국 엘리트 언론이 제기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과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1: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냉전의 종식 이후 나토의 군사개입을 어떻게 정당화했는가?

연구문제 2: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한 정체성의 구성 및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정책 의견에 어떻게 접합되었는가?

연구문제 3: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안적 언론은 나토의 군사개입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2) 연구 방법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을 분석하는 이 연구는 (과거의) 행위나 결과에 대한 책임

(accountability)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의무와 당위로서의 책임(responsibility)을 구별하여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나토의 군사개입에 대한 정당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리우웬(Van Leeuwen, 2007)이 제시한 정당화(legitimation) 분석 방식을 이용한다. 그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실천에서 정당화가 구성되는 방식을 권위화(authoriz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서사화(mythopoesis)로 범주화한다. 먼저 권위화는 전통·관습·법 등 제도적 권위 또는 그 담지자를 근거로 한다. 둘째, 도덕적 평가는 가치 체계에 근거한다. 셋째, 합리화는 제도화된 행위의 유용성과 인지적 타당성을 부여받은 사회적 지식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서사화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부당한 행위는 처벌하는 서사를 사용한다.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군사개입에 대한 정당화 방식의 분석만으로는 전지구적 책임 담론의 함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기구조주의를 수용하는 국제관계이론은 국제분쟁 관련 행위자의 정체성 구성과 대외 정책 방향의 상호의존관계를 가정한다(Hansen, 2006). 두 번째 연구문제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정책 의견의 상호의존관계를 가정하면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군사개입의 정당화와 접합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관련된 행위자들의 정체성 구성 및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정책 의견에 접합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을 대안적인 담론들과 비교하면서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에 나타난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의 분석 사례로 1990년대 나토가 인도주의를 표방하며 개입한 보스니아 내전(1992~1995)과 코소보 분쟁(1998~1999)을 선택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일간지 가운데 이념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및 보수적 성향의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사설을 이용했다. 미국 엘리트 신문의 대안적 언론으로는 미국의 진보적 주간지 《네이션》(*Nation*)

및 영국의 진보적 일간지 《가디언》(Guardian)과 일요일판 자매지 《옵저버》(Observer)(이하 《가디언》으로 통칭)를 살펴보았다. 편집진과 외부 기고자의 사설을 함께 게재하는 《네이션》은 미국 진보 진영의 다양한 이념적 입장을 포괄한다. 보스니아 사태를 둘러싼 영국 정부의 정책은 군사개입 이전 시기에는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반면, 코소보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을 반영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엘리트 언론의 비교를 통해 두 국가 간의 정책 차이가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중도좌파 성향의 《가디언》은 보수 언론과 다르게 협의의 국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지구적 책임을 보다 일관되게 주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은 나토의 군사개입과 관련된 언론의 정책 의견을 뚜렷하게 나타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나토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중심으로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 기간을 ‘군사개입 이전·군사개입·군사개입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나토의 대규모 공습에 따른 시기 구분은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성격이 분쟁의 전개 과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군사개입 이전’ 시기는 미국 엘리트 신문이 두 분쟁을 주목한 때부터 나토의 대규모 군사행동 직전까지이며, ‘군사개입 이후’ 시기는 나토의 종전 선언으로부터 미국 엘리트 언론의 주목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로 한정했다(<표 1>).

분석 자료로는 보스니아 내전의 경우 ‘보스니아(Bosnia*)’를 포함한 사설을, 코소보 분쟁은 ‘코소보(Kosov*)’와 ‘밀로세비치(Milosevic)’를 포함한 사설을 이용했다. 두 분쟁이 주된 제재가 아닌 사설 역시 이들이 규정되는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2>와 <표 3>은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프로퀘스트(Proquest)’와 ‘미국의 신문(America’s Newspapers)’을 이용하여 수집한 미국 엘리트 신문과 대안적 언론의 사설 게재 수를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1> 나토의 군사개입 시기 구분: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

시기 구분	군사개입 이전	군사개입	군사개입 이후
보스니아 내전	1992년 3월 1일~ 1995년 8월 29일	1995년 8월 30일~ 1995년 9월 20일	1995년 9월 21일~ 1995년 12월 31일
코소보 분쟁	1998년 3월 1일~ 1999년 3월 23일	1999년 3월 24일~ 1999년 6월 9일	1999년 6월 10일~ 1999년 12월 31일

<표 2>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 관련 미국 엘리트 신문의 사설 게재 수

시기 구분		군사개입 이전	군사개입	군사개입 이후	계
보스니아 내전	뉴욕 타임스	194	5	21	220
	워싱턴 포스트	188	6	23	217
	월 스트리트 저널	56	1	12	69
	소계	438	12	56	506
코소보 분쟁	뉴욕 타임스	29	50	32	111
	워싱턴 포스트	39	45	46	130
	월 스트리트 저널	17	33	18	68
	소계	85	128	96	309
계		523	140	152	815

<표 3>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 관련 대안적 언론의 사설 게재 수

시기 구분		군사개입 이전	군사개입	군사개입 이후	계
보스니아 내전	네이션	38	1	11	50
	가디안	275	4	20	299
	소계	313	5	31	349
코소보 분쟁	네이션	6	26	15	47
	가디안	32	51	35	118
	소계	38	77	50	165
계		351	82	81	514

3) 나토의 군사개입 배경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은 1990년대 나토가 인도주의적 책임을 주장하며 주권국가에 무력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중동의 질서 유지와 석유 자원 등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며, 2001년 테러 이후 미국이 감행한 일련의 군사행동은 자국과 세계의 안보를 중심으로 정당화되었다. 발칸반도의 두 분쟁은 미국의 이해관계나 안보 문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 물론 유럽공동체의 성숙과 유럽연합의 형성에서 나타난 서유럽의 정치적·경제적 결속 강화에 대응하여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유럽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Tyler, 1992). 유고 연방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서유럽 국가들 역시 전쟁 난민의 이주와 유럽 지역으로의 전쟁 확산을 우려했다.

다민족국가인 유고 연방은 해체 이전 코소보와 보이보디나를 자치주로 포함한 세르비아·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이하 보스니아)·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슬로베니아·몬테네그로 등 6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었다. 유고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과 강제 이주의 발생으로 서방의 주목을 받은 분쟁은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이다. 보스니아 내전 기간 동안 1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와 1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난민과 망명자가 발생했다(Tabeau and Bijak, 2005). 코소보 분쟁에서는 나토의 개입 이전에 이미 2천여 명의 알바니아계 사상자와 약 30만 명의 전쟁 난민이 생겨났으며, 나토의 개입 이후 그 이상의 추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했다(Chomsky, 1999, p.49).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의 외적 요인으로 냉전의 종식 이후 민족주의의 부상 및 유럽에서의 주도권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모순된 대외 정책을 들 수 있다. 내적으로는 복잡한 인종과 종교에 따른 공화국 간·공화국 내의 갈등이 유고 연방을 서로 적대적인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분할시키는 발칸반도의 ‘발칸화(Balkanization)’를 촉진시켰다. 특히 1989년 밀로셰비치 정부의 등장 이후 급부상한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유고 연방 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유고 연방 공화국들의 연쇄적인 독립선언을 야기했다.

보스니아 내전은 이슬람계와 헤르체코비나계가 1992년 국민투표를 거쳐 세르비아계 주도의 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본격화된다. 독립을 선언한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의 연대(보스니아 정부)에 맞서 세르비아계는 보스니아 내에 스프스카 공화국을 수립하고 군사적으로 대항했다. 서유럽이 유엔평화유지군 배치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에 노력했던 반면, 미국은 전쟁 세력 중 보스니아 정부를 지원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려고 했다. 1995년 7월 경무장한 네덜란드의 유엔평화유지군이 보호하던 ‘안전지대(Safe Area)’ 스레브레니차 지역에서 일어난 세르비아계의 민간인 학살은 나토의 정책을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나토의 대규모 공습(Operation Deliberate Force)은 세르비아계의 인종 탄압 중지과 보스니아 내 세력별 영토 분할 비율을 명시한 평화협정의 수용을 명분으로 1995년 8월 30일부터 3주간 전개되었다. 대규모 공습 이후 미국의 중재로 같은 해 11월에 데이턴 평화협정이 타결되었다.

1998년 세르비아 공화국의 코소보 지역에서 발발한 코소보 위기는 코소보 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알바니아계의 독립 움직임과 세르비아계의 민족주의 간의 대치로 촉발되었다. 과거 10여 세기 동안 다양한 민족의 소유권 분쟁이 거듭되었던 코소보 지역에는 당시 알바니아계가 인구의 90%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밀로세비치 정부의 코소보 자치권 박탈에 저항했다. 나토는 알바니아계에 대한 세르비아 정부의 인종 탄압과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의 중지 및 평화협정의 수용을 요구하면서 1999년 3월 24일부터 78일간 세르비아의 수도 벨그레이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Operation Allied Force). 서방이 코소보 문제의 핵심을 인권으로 공언했다면, 세르비아는 서방의 개입을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했다. 나토의 공습은 코소보로부터 세르비아와 나토의 병력을 철수하기로 한 종전협정인 랑부예 조약을 세르비아가 수용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세르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

나토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진영은 1990년 유고 연방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비현실적이고 모순되는 대외 정책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나토의 팽창주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유럽 내 주도권 경쟁, 유고 연방을 시장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서방의 경제적 동기 등을 무력 사용의 발단으로 보면서 인도주의적 개입 주장의 허구성을 고발한다(Parenti, 2000). 알바니아계를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 개입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코소보 분쟁 이전에는 코소보 해방군을 테러단으로 규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토의 공습이 코소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나토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종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코소보는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전쟁 피해 복구 및 지역 간 화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은 모든 국제분쟁에 경찰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더라도 세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익 중심의 선택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군사개입에 관한 미국 정부의 담론은 국익 추구하고 전지구적 책임을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 전후에 나타난 미국 정부와 군부의 개입주의 담론을 살펴보면, 1992년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경쟁국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Tyler, 1992). 미국 정부의 1995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패권 유지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려는 정책이 밝혀져 있다(White House, 1995).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 직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및 세계 평화 유지의 책임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개입주의 원칙을 공언했다(Klare, 1999). 개입주의 정책에서 나타난 국익과 책임의 연계는 미국의 번영을 위하여 미국적 가치의 세계적 실현이 필요하다는 코소보 분쟁 당시 나토 군사령관 클라크(Clark, 2001)의 주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는 기술적 우위에 기초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과 ‘기술전(technological warfare)’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웹스터(Webster,

2003)는 양차 세계대전에서 1970년대까지 국익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동원했던 ‘산업전(industrial warfare)’과 달리, 정보전에서는 정보관리와 인권 강조 등 전쟁에 관한 대국민 인지 관리(perception management)가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한다. 이는 베트남 전쟁 이후 여론이 미군의 희생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다. 인권 강조와 자국 군 보호의 양립은 공중전과 정밀유도무기에 의존하는 군사행동을 촉발시켰다. 결과적으로 자국 군 사상자를 회피하려는 전쟁 방식은 무력을 이용한 강압 외교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되었고, 공중전과 정밀 유도무기의 사용은 군사행동을 용이하게 만들었다(Mandel, 2004, pp.11~16).

4. 분석 결과 및 해석

1)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군사개입의 정당화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 엘리트 신문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정부 정책과 국익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나토의 군사개입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이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일반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대외적 책임과 군사행동으로 인한 미군 희생의 반대라는 국내적 책임 사이에서 절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책임 주장은 특히 군사행동을 위한 정당화와 자원동원이 요구되는 군사개입 직전과 개입 초기에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했으며 세 엘리트 신문이 제시한 정책 의견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보스니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나토 내 미국 주도의 보스니아 정책의 부상과 함께 강화되었다. 서유럽이 정치적 협상과 평화유지군 파견을 통해 보스니아 정책을 주도한 군사개입 이전 시기, 미국 엘리트 신문은 보스니아 내전을 둘러싼 상황 전개에 따라 군사행동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와 자국 지상군 파견 반대라는 국내적 책임 사이에서 절충적인 관여를

<표 4>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군사개입의 정당화

시기 구분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
군사개입 이전	군사개입의 정당화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비일관성과 절충적 관여 주장	역사적 맥락 창출과 국제전으로서의 분쟁 묘상
	도덕적 평가	인도주의적 책임, 지역 안보의 책임, 서방의 무책임	인도주의적 책임, 지역 안보의 책임, 희생자/악당 이분법적 대립 강화
	합리화	미국의 세계 지도력, 자국 군보호 및 지상군 파견 반대(국내적 책임)	미국의 세계 지도력, 자국 군보호 및 지상군 파견 반대(국내적 책임)
	서사화	금수 조치 해제와 분쟁 세력들 간 공정한 전쟁	역사적 맥락화(알바니아계의 지배적 인구 구성비와 자치권 박탈), 세르비아 민족주의 확산
	권위화	유럽과 유엔의 무능, 나토의 신뢰성	유엔의 무능, 나토의 신뢰성
군사개입	군사개입의 정당화	무력 동원 강압 외교	정치적 맥락 창출과 최후의 수단으로써 무력 사용
	도덕적 평가	인도주의적 책임, 지역 안보의 책임, 희생자/악당 이분법적 대립 구도 완성,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	인도주의적 책임, 지역 안보의 책임, 희생자/악당 이분법적 대립 구도 완성, 밀로세비치의 악마화와 전쟁의 개인화,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
	합리화	미국 주도의 보스니아 정책, 미국의 외교적 승리	개입의 절박함, 기술전의 효율성
	서사화	무력 동원 강압 외교	정치적 맥락화(최후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
	권위화	유엔의 권위 약화와 나토의 권위 강조	유엔의 특권적 지위 부정과 나토의 권위 강조
군사개입 이후	군사개입의 정당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과 개입 결과의 국내적 전유	전후 질서 유지와 피해 복구
	도덕적 평가	평화 유지 활동, 유럽 안보 유지,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	평화 유지 활동, 유럽의 민주주의의 정착,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
	합리화	미국의 외교적 승리, 미국의 패권 재확인	미국의 패권 재확인
	서사화	보스니아 내 민족적 갈등 주변화	분쟁 세력들에 대한 중립성
	권위화	유엔의 주변화와 나토의 권위 강조	유엔의 특권적 지위 부정과 전통적 주권 개념 수정

주장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던 반면, 미국의 이해관계와 자국 군 보호라는 국내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군사개입 시기 동안 미국 엘리트 신문은 보스니아 내전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도덕적 평가와 ‘무력을 동원한 강압 외교’라는 합리화를 내세우며 군사행동을 지지했다. 이들은 군사개입 이후 나토의 무력 사용을 통한 내전 종결을 ‘미국의 승리’로 간주하는 합리화 방식을 통해 개입의 결과를 국내적으로 전유하고, 보스니아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국의 책임을 재확인했다. 《뉴욕 타임스》 사설은 나토의 정책이 미국 주도로 선회함에 따라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강화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현재 보스니아에는 유엔이 존재한다는 표시조차 없다. 세계 전체의 무책임은 밀로세비치 정부의 호전성만큼이나 분명하다. 자유세계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로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정을 어렵지 않게 내렸다. 그는 [당시] 다국적군을 소집하여 이라크군을 철퇴시켰다. 왜 지금 새로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가? [중략] 보스니아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의 수치이다(“우리 시대의 수치 보스니아”, 《뉴욕 타임스》, 1992.5.21).

보스니아에 관한 현실적 문제는 나토가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느냐 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적절한 질문은 지상군 투입이라는 위험을 떠맡아야 할 만큼 보스니아 분쟁의 결과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가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보스니아: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뉴욕 타임스》, 1995.6.3).

미국이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적절하게 이끌어낸 후, 불명예스럽게 이를 실행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이해와 포악한 살육의 분쟁을 저지할 인도주의적 이해 역시 미군이 신중하게 계획된 평화협정의 시행 임무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보스니아 사례의 이해”, 《뉴욕 타임스》,

1995.11.28).

미국 엘리트 신문은 군사개입 이전 시기인 1992년 3월에서 1995년 8월까지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듯, 보스니아 주변 상황의 전개에 따라 인도주의적 책임, 지역 안보의 책임, 나토의 신뢰성 등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절충적인 관여를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정부 개입 촉구가 반드시 미국의 군사행동 자체를 지지하거나 지상군 파견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5년 6월 3일자 《뉴욕 타임스》 사설 “보스니아: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에서 나타나듯이, 서유럽이 보스니아 정책을 주도한 군사개입 이전 시기에 미국 엘리트 신문은 자국의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는 국내적 책임을 대외적 책임에 앞세우며 일관적으로 반대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보스니아 사태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방관을 국제사회와 미국의 ‘수치(shame)’와 ‘굴욕(humiliation)’으로 규정한 반면, 군사개입에 대한 정책 의견에서는 일관성을 띠지 않았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정체성과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을 골자로 하는 합리화 및 유엔의 무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띠지 못했다.

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분쟁 종식을 위한 도덕적 책임은 군사개입 시기에 가장 강하게 제기되었다. 미국 엘리트 신문은 개입 이전 시기 동안 내전의 악화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주체를 미국·서방·유엔 또는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토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무력을 통한 강압 외교’로 규정하고 군사행동의 결과를 ‘미국의 승리’로 전유하면서 미국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군사행동 이전 시기 나토의 대응을 ‘수치’로 규정하는 도덕적 평가를 강조하면서 군사행동을 환영했다. 이렇듯 미국 엘리트 신문은 종전 선언이 임박한 시기부터 무력 사용으로 이끌어낸 분쟁 조정을 미국의 외교력과 패권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았다. 따라서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정책 의견은 명시된 책임 주체와 행위 주체를 파악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사개입

이전 시기 《뉴욕 타임스》 사설 “여전히 피 흘리는 막막한 보스니아”에서 “서방 정부들은 보스니아를 보호하는 데 따르는 위험 때문에 무력화되었다. 방관의 대가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동안 보스니아 인들은 피를 흘린다”라는 서방의 책임 강조가 그 반증 사례이다(1992.11.20).

군사개입 이후 시기 미국 엘리트 신문은 미국의 외교적 승리, 지역 안보의 강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 등을 표방한 합리화를 통해서 전후 미군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책임을 도덕적 의무로 강조했다. 따라서 도덕적 평가를 통한 전지구적 책임이 군사행동의 정당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합리화를 통한 미국의 공헌에 대한 강조는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미국의 패권 유지와 접목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코소보 위기의 해결책으로 단행된 1999년 3월 나토의 대규모 공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스텔브레니차 학살 이후 유엔과 나토가 역할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했던 보스니아 내전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를 맞추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소보 분쟁 전 기간에 걸쳐 미국 엘리트 신문은 세르비아의 주권보다 인권을 우위에 두고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입을 정당화했다. 이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화는 주로 도덕적 평가와 서사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도덕적 평가를 통해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정부를 일관적으로 비판하면서 분쟁의 희생자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세르비아와 세르비아의 인종 정책을 밀로세비치 개인으로 의인화하고 그를 악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는 도덕적 평가는 분쟁 희생자의 구출을 촉구하는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핵심적 요소였다. 서사화 역시 군사개입을 위한 도덕적 평가를 강화하면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했다. 서사화는 갈등적이고 양면적인 사안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구조로 재구성함으로써 한쪽 입장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Johnstone, 2002). 세르비아계의 알바니아계 탄압을 강조하는 서사화는 군사개입 이전 시기 동안 코소보 분쟁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형성하며, 알바니아계가 일방적인 희생자라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이렇듯 역사적 맥락화는 코소보 분쟁이 인종 탄압이라는 정치적 평가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나토의 개입을 인도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화했다.

군사개입 이전 시기 동안 코소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향후 나토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된 서사화의 핵심은 코소보 인구의 90%가 알바니아계이며, 코소보는 밀로세비치 정부의 등장 이전인 티토 정부 아래 자치권을 향유했다는 점이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알바니아계에 대한 탄압은 그 대조를 이루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도덕적 평가를 강화시켰다. 알바니아계가 다수인 인종적 구성과 코소보의 자치권 강조 및 적과 희생자를 축으로 하는 전형적인 전쟁 서사 구조는 주권국가 내에서 발생한 내전을 국제전으로 표상하게 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나토의 무력 사용은 전통적인 주권에 대한 재해석과 선악대비를 통한 도덕적 평가를 통해 정당화된다. “21세기 벽두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와 같은 독재자가 자국 내 국민에 대한 주권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코소보 이후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주권을 명분으로 삼는 사악한 악당의 주장에 선을 긋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월 스트리트 저널》, 1999.6.11). 공습 이전 도덕화와 서사화를 통해 코소보 분쟁이 국제전으로 표상되었다면, 나토의 공습 시기에는 개입의 정당화를 위하여 도덕적 책임과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이라는 절박함이 강조된다. 유엔의 주변화를 통한 나토의 권위화 역시 미국 엘리트 신문이 군사개입 시기에 이용한 정당화의 또 다른 방법이다. 특히 군사행동에 따르는 피해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크다는 논리를 사용한 무력 사용의 합리화는 국제분쟁의 조정자로서 유엔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무력 사용에 대한 정당화가 필수적인 군사행동이 임박할 무렵과 개입 초기에 《뉴욕 타임스》는 인권과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나토의 개입을 지지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알바니아계에 대한 인권 탄압을 강조하면서도 코소보 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명시적으로 국익의 틀 안에서 구성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공습의] 목적은 밀로세비치가 코소보인을 공격할 수 없도록 무력화되어 나토의 평화유지군을 수용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토 회원국인 그리스와 터키로의 확전을 막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이기도 하다. 더욱이 향후 다른 인물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 살육을 막기 위하여 지난 10월 이후 서방이 경고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공습의 근거”, 《뉴욕 타임스》, 1999.3.24).

무력 사용은 결코 외교적 교착상태에 대한 이상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어제 클린턴 대통령과 나토 지도자들이 세르비아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의 군대를 공격한 것은 옳았다. 이 발칸의 독재자는 수많은, 진실로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고, [나토의] 폭격을 도발하는 것이 자신의 단기적인 이해에 부합한다고 믿은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나토는 밀로세비치 세력에게 앞으로 이득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충분한 공격을 강행해야 한다(“심각 해져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 1999.3.25).

코소보 분쟁은 사건이 아니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실책은 서방 전체와 특히 미국이 방관함으로써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현실적인 선택은 조기에 보다 현명하게 관여해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다음의 코소보”, 《월 스트리트 저널》, 1999.3.24).

군사행동 이후 미국 엘리트 신문은 전지구적 책임을 주장하며 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유럽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기존의 주권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지구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주장하며 밀로세비치와 그를 지원한 러시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코소보 난민의 보호와 코소보 복귀를 돕는 임무를 나토의 인도주의적 책임으로 부각시켰다. 세르비아 정부의 평화협정 수용 이후 세르비아계를 코소보 해방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이는 군사개입 이후 변화된 분쟁 세력들 간의 전세를 반영함과 동시에, 평화 유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군사행동 시기에

극대화된 ‘우리 대 그들’의 이분법적 대립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의 해결을 위한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인도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주권국가의 분쟁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비일관성에 대조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에 대한 고려의 관철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표방한 군사개입의 잠재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또한 군사개입 시기에 제기했던 책임 주장이 대규모 공습 이후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복구 및 안보 유지 과정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접합: 행위자에 대한 정체성 구성과 정책 의견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분쟁과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한 정체성 구성 및 정책 의견에 접합되는 양상은 미국 엘리트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지닌 이념적·실천적 성격을 부각시켜준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문제에 대한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세계 질서와 평화의 유지자라는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접합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정책 의견은 항공전과 정밀유도무기의 효과를 강조하고 자국 군인의 잠재적 희생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국내적 책임과 연계되었다. 따라서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세계 질서의 유지자로서 미국의 정체성에 부합한 반면,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정책 의견과는 모순적이었다. 특히 보스니아 전쟁 관련 행위자에 대한 정체성의 구성과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평가는 나토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와 관련되었다.

보스니아에 대한 군사개입 이전 시기에 펼쳐진 미국 엘리트 언론의 책임 주장은 주로 서방과 유엔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었다. 반면 군사개입 시기에 제기된 책임 주장은 적국인 세르비아계의 스크프스카 공화국과 가치 있는 희생자인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의 연대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기초했다. 이 시기에는 스크프스카 공화국과 이를 지원하는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의 전쟁 책임에 대한 개인화·악마화 역시 특징적이었다. 보스니아의 분쟁 세력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전쟁 서사 구도를 구성했다. 적으로부터 희생자를 구출하는 영웅으로 표상되는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전쟁 서사에 호응하며 강화되었다. 따라서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분법적 정체성 구성은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함께 나토의 군사행동이 인도주의적 개입임을 부각시켰다. 대규모 공습 이후에도 미국 엘리트 신문은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영웅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연계시키면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평화협정과 분쟁의 종결 과정을 ‘미국의 승리’와 패권 재확인으로 전유했다. 그러나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접합된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은 유엔의 주변화를 도약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코소보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행위자의 정체성과 전쟁 수행 방식 평가에 접합되는 양상은 보스니아 내전의 상황과 유사했다. 미국 엘리트 신문에서 나타난 코소보 문제 관련 국가들의 정체성 역시 멜로드라마적 서사 구조로 읽어낼 수 있다. 특히 나토의 대규모 공습 개시를 전후하여 악으로서의 밀로셰비치, 희생자로서의 알바니아계와 유럽, 그리고 악당으로부터 희생자를 보호하는 영웅 미국이라는 전형적인 전쟁 서사가 전면부에 부각되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유럽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워왔다. 이제 이 전투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지금은 어리석게 이 전투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 1999.3.21).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정체성의 구성에서는 코소보 해방군과 밀로셰비치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변화가 특징적이다. 1998년 3월 코소보 분쟁의 인식 초기에는 세르비아계와 코소보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알바니아계 양쪽 모두 사태의 악화에 대해 책임(accountability)을 지닌 동등한 갈등 세력으로 규정된다. 반면 1999년 3월 나토의 군사행동과 함께 인류공동체의 적(세르비아 정부)과 희생자(알바니아계)라는 이분법적인 전쟁 서사의 구도가 완성된다. 밀로셰비치를 통한 전쟁의 의인화와 그의 악마화를 이용한 도덕적 평가 역시 정치 지도자와 국민을 분리시키면서 세르비아계 역시 민족주의의 희생자로 규정하면서 전지구적 책임 주장

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두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 엘리트 신문에서 구성된 멜로드라마적인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잠재성을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앵커(Anker, 2005)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직후 이를 다룬 미국의 방송 뉴스를 분석하면서 멜로드라마의 서사 구조가 문학과 영화의 장르를 넘어서 미국의 문화와 정치적 담론에 광범위하게 구조화된 문화적 양식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논의를 빌리면,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전쟁 보도에서 나타난 명확한 선악의 대비와 멜로드라마적 서사 구조 역시 유고 연방의 분쟁 세력들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단순화하고 미국의 정책을 이상화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 속에서 유엔의 권위 약화가 이러한 관찰을 지지하는 사례의 하나이다. 멜로드라마적인 집합적 정체성은 선과 악의 명확한 대비를 통해 시민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자아내고, 국내적·전지구적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핵심이 되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과 숙의를 저해하는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미국의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의 접합은 군사행동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한계를 암시한다.

보스니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개입에서 나토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정책 의견은 분쟁의 전개 과정과 나토 내 미국의 주도권 여부에 따라 변화되었다. 미국 주도의 보스니아 정책의 형성과 함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습의 결과를 ‘미국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지상군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 엘리트 신문들은 모두 대규모 공습 이전에는 자국의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미국의 책임이 강조된 스레브레니차 학살 이후 군사개입이 임박한 시기에도 파병 반대라는 정책 의견에는 변화가 없었다. “누구의 군대를 지상군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 군대는 허용할 수 없다. 물론 나토의 개입과 평화유지군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파견안 외에는 그 누구도 지원병으로 구성된 우리 군대의 ‘미국 청년들(US boys)’을 파견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없다”(《월 스트리트 저널》, 1995.8.1). 이외는 반대로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 이후 세 신문은 한 목소리로 ‘무력을 통한 강압 외교’로 사태를 진정시켰듯

이 보스니아의 평화 유지를 위하여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공폭격과 기술전의 효과에 대한 강조는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과 관련된 미국 엘리트 언론의 특징적인 정책 의견이다. 공중폭격과 정밀유도무기 등 기술전을 강조하는 전쟁 수행 방식은 나토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항공전과 기술전을 이용한 군사행동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인종 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의 박약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뉴욕 타임스》, 1999.4.11). 미국 엘리트 신문에서 나타난 기술적 우위에 의존하는 전쟁 수행 방식의 선호는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공폭격과 정밀유도무기의 사용에서 야기된 군사행동의 폐해를 주변화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전의 효율성을 강조한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평가는 무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유고 연방 내의 민간인 희생과 민간 시설 파괴를 ‘불가피한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뉴욕 타임스》, 1999.6.17). “미국 내에서 명령을 받고 출격한 폭격기를 포함하여 미국 주도의 나토 폭격기가 코소보에서 한 치의 빈틈없이 매우 정교하게 분산된 목표물을 파괴했다. [중략] 이 모든 것이 사상자 없이 이루어졌다.”(《월 스트리트 저널》, 1999.6.11). 지상군의 파견 없이 기술전에 의존하는 무력 사용은 평화 유지와 재건 과정에서도 그 한계가 분명하다(Hardt & Negri, 2004, p.45). 미국 엘리트 신문이 자국 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나토의 전면전에 의하여 세르비아 지역의 사상자와 난민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은 것도 이들이 주장한 인도주의적 책임의 잠재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렇듯 항공전과 정밀유도무기의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타자의 고통에 대한 해결보다는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자국 군인의 안전이라는 국가적 틀에 보다 밀접하게 접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은 미국 엘리트 언론이 군사개입 이후 인도주의적 책임을 주장하며 지상군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까닭이 그 이전과 달리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정치적 논공행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미국의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과 접합되면서 전쟁 수행 방식에서 나타난 모순을 봉합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일관되지 않은 지상군 파견 주장과 군사행동의 부정적 함의에 대한 배제는 미국 엘리트 신문의 인도주의적 주장 속에 감추어진 미국 국익의 극대화 논리를 드러낸다.

3) 대안적 언론의 군사개입 평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주간지 《네이션》은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을 둘러싼 나토의 군사행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도전하거나 군사개입의 평가에 다양한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미국과 영국의 엘리트 언론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주간지가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분쟁 세력들에 대하여 중립성(neutrality)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션》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고, 협의의 국익 중심에서 벗어나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분쟁 세력들 및 나토 동맹국들의 이해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원칙적인 유고 연방 정책 역시 분쟁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네이션》은 보스니아 분쟁 기간 전체에 걸쳐 유엔을 통한 정치적 협상을 지지했던 반면, 코소보 사례에서는 군사개입 이전 시기 미국 엘리트 신문과 유사하게 무력 사용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코소보 분쟁에서도 대규모 공습의 개시와 더불어 군사행동 자체에 대해 도전하고 민간인의 피해를 지적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의 한계를 부각시켰다. 따라서 이 주간지는 엘리트 신문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에 기초한 전쟁 수행 방식의 정당화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네이션》은 보스니아 내전의 전체 기간 동안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의 연합군과 함께 세르비아계에도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고 양쪽 모두 협상과 평화 유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유고 연방 내 공화국들의 독립선언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과실도 명백하게 밝혔다. 이 주간지는 분쟁 과정에서 유엔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엔의 역할

강화와 권위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네이션》은 코소보 문제와 관련된 군사개입의 평가에서 분쟁의 전개에 따라 시기별로 역동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 주간지의 입장은 대규모 공습 이전 시기 알바니아계에 대한 밀로세비치 정부의 인종 억압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책임을 주장했다. 유엔의 개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나토 주도의 군사행동을 통해 밀로세비치를 축출하고 코소보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사개입 시기 동안 《네이션》 사설에서는 군사행동에 대한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 개입 초기에는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사설과 그렇지 않은 사설로 정책 의견이 양분되었고, 후기에는 군사개입의 폐해에 초점을 맞추며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었다. 군사개입 초기 《네이션》 사설은 미국의 진보진영이 코소보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국가주권보다는 진보적 국제주의를 내세우며 군사행동을 옹호하는 입장과 무력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비판하는 군사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나뉘었음을 드러낸다. 이 잡지는 군사개입의 후기에는 인도주의적 책임을 내건 군사행동이 실제로는 나토의 신뢰성 유지와 이해관계에 얽혀 있음을 비판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개입 후반기부터 제기되는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토의 공습이 세르비아의 반격을 자극했고 이에 따라 민간인의 희생이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반전 입장을 견지했다. 《네이션》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전쟁 세력들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코소보 분쟁 관련 나토의 군사행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책임과 무력 사용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에 대한 접근에서 나타난 미국 정부와 엘리트 언론의 호응 관계는 영국 사례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이나 국익의 틀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 주장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 진보적 성향의 《가디안》 사설의 분석 결과, 이 신문의 정책 의견 역시 자국의 대외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안》은 프랑스와 함께 영국이 서방의 보스니아 정책을 주도한 군사개입 이전 시기에는 보스니

아의 전쟁 세력들 간의 정치적 협상과 유엔을 통한 평화 유지를 주장했던 반면, 미국이 주도권을 잡은 군사개입 시기에는 나토의 군사행동에 대해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영국 엘리트 신문은 나토가 유엔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한 코소보 사례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주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했다. 《가디안》은 무력 사용의 배경에 서유럽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발칸의 재건 사업을 통한 경제적 동기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코소보인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책임 때문에 단호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안》 역시 대규모 공습을 전후하여 유럽의 안보에 대한 영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 신문은 전쟁 수행 방식에서는 공중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규모 공습 이전부터 지역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하여 국제사회가 지상군을 투입해 코소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단일한 합법적 입법기관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방관을 초래한다. 유엔의 승인만이 명백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의 계기가 될 수는 없다. 판단의 기준은 국제적 행동이 고상한 수사로 포장된 미국의 이기주의의 추구 그 이상을 의미하는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나토는 이번 주 발칸반도에서 워싱턴의 계산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우리 세대의 시험대인 코소보의 중요성”, 《가디안》, 1999.3.26).

나토의 세르비아 침공에 관한 대안적 언론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는 불간섭주의에 도전하는 도덕적 주장의 강화이다. 먼저 나토와 유엔이 협력한 보스니아 내전과는 달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세르비아에 대한 무력 사용에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코소보 사례에서 진보적 언론인 《네이션》 역시 나토의 군사행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무력 사용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국의 중도좌파 신문 《가디안》 역시 자국 정부가 군사행동에 나선 코소보 사례에

서는 무력 사용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음으로 무력 사용의 급박함을 주장한 《네이션》과 《가디안》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유엔이 지닌 무력 사용에 관한 특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주권국가에 대한 불간섭주의 원칙에 도전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엘리트 신문과 대안적 언론의 비교를 통하여 미국 엘리트 신문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군사행동의 정당화와 접목되면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전쟁 세력들을 둘러싼 역사적·정치적 배경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탈맥락화하는 문제점을 읽어낼 수 있었다.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미국 엘리트 언론은 자국의 전지구적 책임을 주장하며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했다. 둘째,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미국의 국익과 일방주의를 바탕으로 신세계 질서의 ‘선의를 지배 관계’를 반영하면서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셋째,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국익과 국내적 책임을 매개로 기술 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전쟁 수행 방식에 관한 정책 의견과 접목되었다. 따라서 인도주의를 표방한 군사개입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차원의 책임은 이들의 정책 의견 속에서 드러난 국익 극대화 논리 및 국내적 책임의 우선성과 모순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지구적 책임 주장 및 전쟁 수행 방식에 관한 정책 의견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주장 속에 위장된 국익의 극대화 논리를 읽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미국의 멜로드라마적 국가 정체성과 접합되면서 앞에서 지적한 모순을 봉합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 엘리트 언론이 인도주의적 책임을 주장한 동기가 ‘멀리 있는 고통(distant suffering)’에 대해 고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통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분쟁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적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전지구적 책임이라는 상징적 프로젝트를 실현함으로써 선의의 지배 관계를 구현하는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이라는 자아상과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은 미국 국민이 세계 질서와 자국의 대외 정책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며, 전지구적 여론의 형성 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하는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나토의 군사행동이 전지구적 책임에 기초한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지배적인 지식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은 전지구화에 발맞추어 형성되는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미국 엘리트 언론에서 주장한 책임은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각을 전지구적 수준의 지배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지닌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 및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지배적인 담론의 하나로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이 지니는 전략적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진보적인 전지구적 책임 주장과 그 잠재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미디어 담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적 위기와 군사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 사례와 달리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동티모르와 알제리의 분쟁 등에 대해서는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택적인 군사행동에 따른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일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사개입이 이루어진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미국의 엘리트 신문과 대안 언론 및 영국의 엘리트 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대칭적인 세계정치의 힘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토의 움직임과 다른 입장을 취했던 국가의 언론

과 군사개입의 대상국 언론 및 전지구적 비정부기구들의 정책의견을 분석에 포함한다면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쇄 매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 이 글은 전지구적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영상 매체와 인터넷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제기되는 전지구적 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1990년대 나토의 군사개입에서 부각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을 검토한 이 연구는 2001년 테러 이후 미국이 자국 안보와 세계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언론의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적용과 수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분석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와 비판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미디어의 도덕적 담론이 지닌 정치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는 점에 이론적·실천적 함의가 있다. 1995년 북한 기아에 대한 미국 엘리트 신문의 보도를 선전모델에 기초해 분석한 심훈의 연구(2004)는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정치적 성격을 쉽게 긍정할 수 없지만, 북한 사회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도 없는 한국 사회의 딜레마를 깨닫게 한다. 특히 2003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및 유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상정을 둘러싼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함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Ⅰ 참고문헌

- 심훈 (2004). 1995년 북한 기아에 대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분석: 허만과 촘스키의 프로파간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57~83.
- Anker, E. (2005). Villains, victims and heroes: Melodrama, media and September 11. *Journal of Communication*, 55(1), 22~37.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5.
- Biefnot, Y. (2003). Investigating the concept of global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3(3), 10~20.
- Chomsky, N. (1999). *The new military humanism: Lessons from Kosovo*. Monroe, ME: Common Courage.
- Clark, W. K. (2001). *Waging modern war: Bosnia, Kosovo, and the future of combat*. New York: Public Affairs.
- Debord, G. (1994).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New York: Zone Books.
- Elshtain, J. B. (2003). *Just war against terror: The burden of American power in a violent world*. New York: Basic Books.
- Entman, R. M. (2000).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The growth of media power after the Cold War. In B. L. Nacos, R. Y. Shapiro & P. Isernia (Eds.), *Decisionmaking in a glass house: Mass media, public opinion, and American and European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pp.11~26). Oxford: Roman & Littlefield.
- _____ (2004). *Projections of power: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ucault, M. (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1976*. New York: Picador.
- Fouskas, V., & Gökay, B. (2005). *The new American imperialism: Bush's war on terror and blood for oil*. Westport, CO: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Hammond, P. (2004). Humanizing war: The Balkans and beyond. In S. Allan & B. Zelizer (Eds.), *Reporting war: Journalism in wartime* (pp.174~189). London: Routledge.
- Hansen, L. (2006). *Security as practice: Discourse analysis and the Bosnian War*. London: Routledge.
- Hardt, M., & Negri, A. (2000).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 Herman, E. S., & Chomsky, N. (2002).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 Ignatieff, M. (2000). *Virtual war: Kosovo and beyon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2000). *The Kosovo report: Conflict, international response, lessons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ON, 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Johnstone, D. (2000). Nato and the new world order: Ideals and self-interest. In P. Hammond & E. S. Herman (Eds.), *Degraded capability: The media and the Kosovo crisis* (pp.7~18). London: Pluto Press.
- _____. (2002). *Fools' crusade: Yugoslavia, NATO and Western delusions*. New York: Monthly Review.
- Jonas, H. (1974). *Philosophical essays: From ancient creed to technological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are, M. T. (1999, April 19). The Clinton doctrine. *Nation*, 268(14), 5.
- Küng, H. (1991).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 New York: Crossroad.
- Mandel, R. (2004). *Security, strategy, and the quest for bloodless war*. Boulder, CO: Lynne Rienner.
- Mepham, D., & Cooper, J. (2004). *Human rights and global responsibility: An international agenda for the UK*.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Midgley, M. (1999). Towards an ethic of global responsibility. In T. Dunne & N. J. Wheeler (Eds.), *Human rights in global politics* (pp.161~1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enti, M. (2000). *To kill a nation: The attack on Yugoslavia*. London: Verso.
-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1997). Statement of principles. New American Century Web site, Available: www.newamericancentury.org/statementofprinciples.htm
- Rantanen, T. (2005). *The media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 Ricoeur, P. (2000). *The ju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ib, P. M. (2002). *The global journalist: News and conscience in a world of conflic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Spivak, G. C. (1994). Responsibility. *Boundary 2*, 21(3), 19~64.
- Tabeau, E., & Bijak, J. (2005). War-related deaths in the 1992~1995 armed conflicts in Bosnia and Herzegovina: A critique of previous estimates and recent result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1(2/3), 187~215.
- Tester, K. (1994). *Media, culture and morality*. London: Routledge.
- _____ (2001). *Compassion, morality and the media*.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Thompson, J. B. (1995).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Polity: Cambridge.
- Tomlinson, J. (1991). *Cultural imperi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Pinter.
- Tyler, P. E. (1992, March 8). U.S. strategy plan calls for insuring no rivals develop: Pentagon's document outlines ways to thwart challenges to primacy of America. *New York Times*, 1.
- United Nation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2004).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Millennium Summit. (2000).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 Van Leeuwen, T. (2007). Legitimation in discourse and communication. *Discourse & Communication*, 1(1), 91~112.
- Virilio, P. (2000). *Strategy of Deception*. London: Verso.
- Vogt, H. (2006).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European Union. In H. Mayer & H. Vogt (Eds.), *A responsible Europe?: Ethical foundations of EU external affairs* (pp.1~1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ebster, F. (2003). Information warfare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D. K. Thussu & D. Freedman (Eds.), *War and the media: Reporting conflict 24/7* (pp.57~69). London: Sage.
- White House. (1995).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Maxwell-Gunter AFB Web site, Available: www.au.af.mil/au/awc/awcgate/nss/nss-95.pdf
- Žižek, S. (1999). Against the double blackmail. *New Left Review*, 234, 76~82.

(투고일자: 2008.08.31, 수정일자: 2008.10.09, 게재확정일자: 2008.10.23)

Claiming Global Responsibility for Distant Suffering in Media Discourse

Bosnia and Kosovo

Chongdae Park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form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in the elite US media used in promoting NATO'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ase study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surrounding the Bosnian War (1992-1995) and the Kosovo Conflict (1998-1999) offers an account of the roles of the elite US media in foreign policy. The construction and articul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in the elite US media were closely related to the US government's policy and were 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US national interest and domestic responsibility. The case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post-Cold War period imply that there were more fundamental structure and patterns by which the elite US media approached the 'humanitarian crises': 'benevolent domination' and the subsequent construction of a 'melodramatic national identity' in the war narratives. Presuming that the elite US media's discourse is a primary site for the public for experiencing and understanding distant suffer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within the media may have dangerous ramifications for global democracy because the discourse of responsibility can potentially absorb the creative, progressive energies created by the public's awareness of responsibility on a global scale in order to reinforce the relations of domination.

Key words: global responsibility, military intervention, humanitarian intervention, Bosnian War, Kosovo Conflict